

KRIVET Issue Brief

발행인 박영범 | 발행일 2012년 9월 15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1호 2012. 9. 15

2011년 직업훈련 참여 현황

-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교육훈련참여율은 27.5%, 직업훈련참여율은 19.1%
-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율은 남자(38.5%), 30대(40.8%), 대졸 이상(50.0%), 상용근로자(43.7%)가 높고, 여자(32.4%), 60세 이상(19.4%), 중졸 이하(17.7%), 일용근로자(7.6%)가 낮아 집단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
-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율은 울산(64.6%), 대전(53.2%), 충남(52.4%), 전북(51.1%), 충북(50.5%) 등이 높고, 서울(23.1%)과 인천(23.0%) 등이 낮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훈련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36~40시간 근로자, 41.3% → 51시간 이상 근로자, 32.2%) 실근로시간 단축은 직업훈련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01

분석자료

[2011년 4사분기 설문 문항]

※ 만15세 이상 모두 작성
27. 2011년 1년 동안(1.1~12.31) 다음의 교육훈련에 참여(연말까지 계획된 경우 포함)한 적이 있습니까?
(정규학교 교육 제외)

- ① 있다 ② 없다
L, (주된 것 2가지까지 선택)
①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영능교육 포함)
②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③ 학원수강
④ 교양강좌(대학평생교육원, 복지관, 시민화관 등)
⑤ 기타 ()
→ 27-1. 참여한 교육훈련이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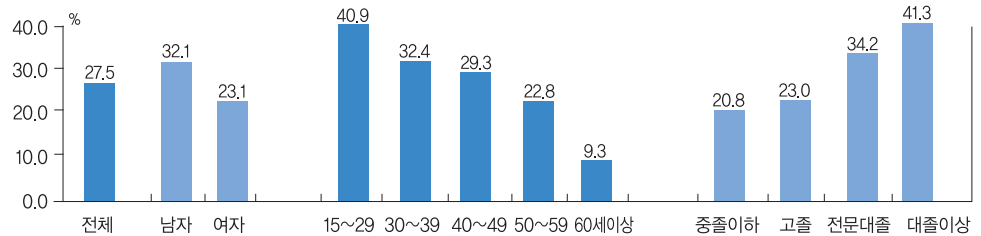
- 분석자료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2011년 4사분기)
 - 동 조사는 전국 약 17만 6천가구의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2011년 4사분기의 경우 35만여 명을 조사함.
 - 매 4사분기 조사에 포함된 교육훈련 문항을 분석
- 용어의 정의
 - 교육훈련참여율: 대상 인구 전체에서 지난 1년간 정규학교 교육을 제외하고 교육훈련(직장연수, 기관 주관 직업훈련, 자기 주도 학습, 학원수강, 교양강좌 등)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중
 - 직업훈련참여율: 대상 인구 전체에서 지난 1년간 참여한 교육훈련이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되었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중

02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

| 15세 이상 인구의 2011년 연간 교육훈련참여율은 27.5%

- 인적 속성별로는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참여율이 높음.
 - 성별로는 남자(32.1%),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40.9%),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1.3%)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 15세 이상 인구의 인적 속성별 교육훈련참여율

경제활동상태별 교육훈련참여율은 취업자가 33.7%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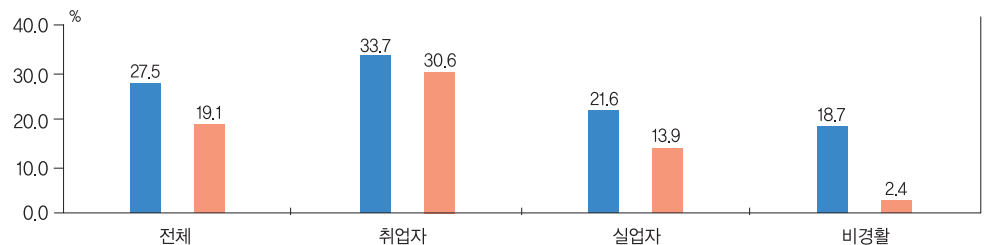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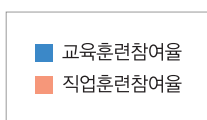
- 교육훈련참여율을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가 33.7%로 가장 높음.
 - 실업자는 21.6%, 비경제활동인구 18.7%로 나타남.
- 교육훈련참여 방법을 보면, 취업자는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영농교육 포함)'이 89.2%로 대부분을 차지함.
 - 반면 실업자는 직장연수 등이 40.1%로 적고, 대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27.0%)과 '학원수강' (27.4%)의 비중이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학원수강' (41.0%)과 '자기 주도 학습' (35.5%)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03

15세 이상 인구의 직업훈련 참여 실태

15세 이상 인구의 2011년 연간 직업훈련참여율은 19.1%

- 취업자는 교육훈련의 대부분이 직업훈련인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대부분 직업훈련과 무관함.
 - 취업자의 직업훈련참여율은 30.6%인데, 교육훈련참여율이 33.7%임을 고려하면 취업자의 교육훈련은 대부분 직업훈련과 관련 있는 것임.
 -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직업훈련참여율은 2.4%에 불과하여 이들이 참여한 교육훈련이 대부분 직업훈련과 무관한 것임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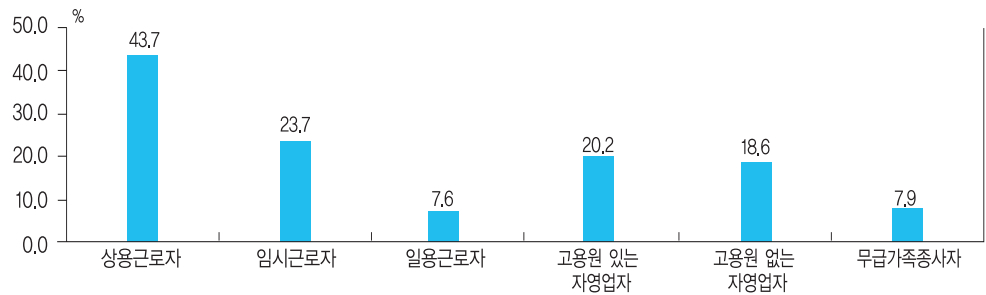


[그림 2] 15세 이상 인구의 직업훈련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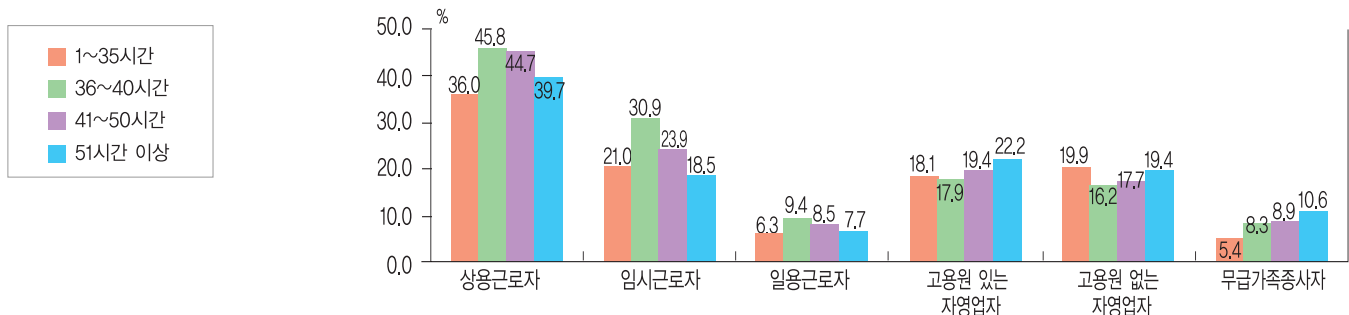
주

조사표의 주업시간과 부업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43.7%)가 가장 높고 일용근로자(7.6%)와 무급가족종사자(7.9%)가 가장 낮음.
 - 근로시간²⁾대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36~40시간에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여 근로시간이 길수록 훈련받을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
 -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임금근로자와 다른 패턴을 보임.



[그림 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직업훈련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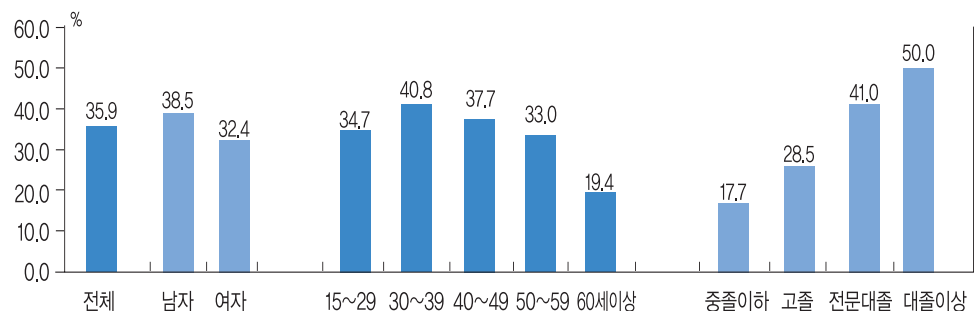
[그림 4]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대별 직업훈련참여율

04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실태

|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율은 35.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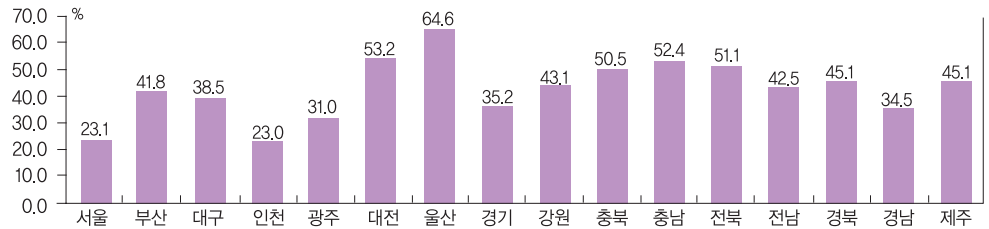
- 인적 속성별로 살펴보면, 남자(38.5%), 30대(40.8%), 대졸 이상(50.0%)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대졸 이상 학력의 임금근로자는 절반이 직업훈련에 참여함.



[그림 5]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별 직업훈련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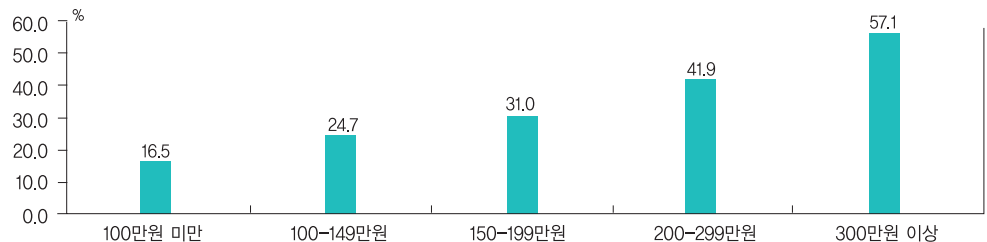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율은 지역별, 산업별, 직종별로 편차가 있음

- 울산이 64.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 밖에 대전(53.2%), 충남(52.4%), 전북(51.1%), 충북(50.5%) 등이 50%를 넘는 직업훈련참여율을 보임.
 - 반면 서울과 인천은 각각 23.1%, 23.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그림 6] 임금근로자의 지역별 직업훈련참여율

-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6.0%)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5.5%), '금융 및 보험업' (62.0%)이 높고, 영세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 (12.8%)과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20.5%)은 낮은 수준을 보임.
- 직종별로는 전문가(48.7%), 관리자(46.8%), 사무종사자(43.0%)의 직업훈련참여율은 높은 반면, 단순노무종사자(15.1%)와 기능원(25.9%)은 낮음.
- 임금수준별로 살펴보면, 임금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참여율이 상승함.
 -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6.5%이고,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참여율이 상승
 -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57.1%로 100만원 미만에 비해 40.6%p 높음.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별 직업훈련참여율

05

시사점

| 집단간 직업훈련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

- 직업훈련참여율은 성, 연령, 학력, 종사상지위, 지역 등에 따라 집단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근로조건이 좋을수록 직업훈련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직업훈련 참여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집단간 훈련참여 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훈련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장시간 근로가 직업훈련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이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직업훈련참여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²⁾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직업훈련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단위인 지역(지자체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지역별로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거나 높은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지역의 직업훈련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임.

| 주 |

본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역간 격차는 인적 속성이나 산업, 직종 등을 통제할 경우에도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